65 - 냉장고 세척과정에서 생긴 화상

1. 개요

일용직 근로자로 냉장고 세척업무를 하다 오른쪽 팔꿈치 아래의 열감을 느끼고 당일 피부괴사 및 3도 화상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화경

근로자는 가성소다(NaOH)가 함유된 세제액으로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직접 닦거나 수세미로 직접 대야에 담아 닦는 형태로 작업을 했다. 냉장고 세척업무에 사용했던 가성소다를 섞은 세제액 분석결과 세척액의 농도는 15M, 0.66%농도였으며 pH는 12.03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재해당일 오른쪽 팔꿈치 아래 3도 화상으로 진단받고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4. 고찰

가성소다의 경우 피부에 25-50% 용액이 닿았을 때는 3분 이내에 자극증상이 나타나지만, 4% 용액인 경우에는 여러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나타나지 않는다. 토끼에 대한 동물실험에서 2%의 가성소다 수용액에 4시간동안 노출되었을 때에 피부 부식성을 보였으나 1% 가성소다 수용액에서는 손상(damage)을 주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5. 결론

근로자가 사용한 세척액(0.66%의 가성소다)은 몇시간 안에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도 3도 화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었다.

144 직업병 진단사례집